

하워드 김·티나 조 후보 LA 통합노조 공식 지지

11월6일 세리토스 지역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하워드 김·티나 조 후보가 LA카운티 통합노조(AFL-CIO)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다.

AFL-CIO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인 하워드 김(ABC 통합교육구), 티나 조(세리토스 칼리지교육구)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. AFL-CIO는 교육, 중산층 직업, 건강보험, 노조설립 등에 대한 각 입후보자의 입장을 평가한 뒤 이 날 31명의 지지후보를 공개했다.

노조는 ABC 통합교육구에서는

하워드 김·루이스 도슨·아민 레이에스 후보, 세리토스 칼리지교육구에서는 티나 조·로사 바라간·톰 차베스·마틴 그리네티지 후보를 선택했다. AFL-CIO는 LA카운티 내 350개 각급 노조를 대표한다.